

정동영 출마...野 강세 관악乙 선거구도 '흔들'

불출마뻔 입지 좁아질 우려 출마 강행

27년 지킨 새정치 야권 표 분산에 불안

국민모임 소속 정동영 전 의원이 30일 서울 관악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4·29 재보선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야권 분열이라는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 전 의원이 출마 결단을 내린 것은 '야권 재편'의 판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자신은 물론 진보정당 창당의 깃발을 든 국민모임까지 대중에게서 잊혀질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모임이 흐지부지될 경우 탈당까지 하며 야권 재편을 외친 자신도 입지가 좁

아지고, 내년 총선에 어려워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의 부담도 적지 않다. 관악 을에서 당선되거나 압도적 2위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정치 생명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모임 측에서는 정 전 의원의 관악 을 출마와 광주 서구 을의 전정배 의원의 무소속 출마가 호남 민심의 결집을 이끄는 등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마하다 직격탄을 맞은 새정치연합은 그야말로 '패닉(정신적 공황)'에 빠졌다.

당장, 지난 27년 동안 보수 정당에 한 번도 의석을 내준 바 없어 당선권으로 분류

한 관악 을에서 야권 표 분산이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관악 을의 선거판도에 대해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 새정치연합 정태호 후보와 정 전 의원이 유권자 표를 3분하는 '3대 3대 3' 구도가 형성됐다는 관측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관악 을의 판세는 야권 표 분산으로 야권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우려하던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됐다"며 "정 전 의원이 10%만 얻어도 우리당 후보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동영 탈당 여파가 광주 서구까지 미칠 경우 판세가 요동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의 위기감이 깊어지고 있다. 정 전 의원의 출마로 전정배 바람이 크게 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의 위기 국면에 따라 새정치연합 지지층이 오히려 결집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태 후보는 "정동영 전 장관의 출마는 우리 당으로 파서는 수도권 선거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지만, 지역에서는 표심이 분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당초 힘겨운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새누리당은 야권 표심의 분열에 따라 승기를 잡은 것 아니냐며 반색하고 있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권 후보가) 많이 나오면 선거는 구도 싸움이니 새누리당이 유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여당 후보의 당선에 유력하다면 막판 야권 연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역현안 챙기겠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4·29 재보궐선거(관악을)에 출마하는 오신환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관악구 난곡 119 안전센터 방문해 관계자들과 출동 현황 등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경제·안보무능 심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30일 서울 관악구 원신길 율곡경로당 앞에서 국민모임 정동영 전 의원의 서울 관악을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무성-문재인 관악乙 현장 격돌

金 “野 27년 독주 견제”

文 “朴 정권 독주 견제”

4.29 재보궐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서울 관악을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30일 오전 동시에 관악구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가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신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관악을은 13대 총선 이후 27년 동안 야당이 독점해 온 지역인데 지역 발전이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고 비판한 뒤 남은 난곡지구 아파트의 안전문제를 지적하며 “오 후보가 당선되면 그 이름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위험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약속했다.

특히 김 대표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유능한 경제정당임을 보여주겠다면서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경제살리기 법의 발목을 잡고 무책임하게 비난만 하는 행태는 유능한 경제정당이 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 후보를 당선시켜주려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모여서 지역 현안을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시각 새정치연합도 관악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맞불을 놔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정부의 경제 실적

심판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지만, 세월호참사 1주년(4월16일)을 앞두고 야권 지지층이 들끓자 전면적인 의견심판론을 꺼내드는 분위기다. 정부가 최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규약을 축소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것이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끼얹었다.

문재인 대표는 “1년도 안돼 정부·여당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4·29 재·보궐) 선거는 박근혜 정권의 독주를 막는 ‘브레이크 선거’”라고 강조했다.

유운근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경제무능, 안보·인사무능을 심판하지 않고

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없다”며 전면적 심판론을 폈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정치는 외면하고, 경제는 실종되고 사회 분열과 안보 무능의 늪에 빠져 허우적댄다”고 비판했다.

이날 양당의 최고위원회의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으나 국민모임의 정동영 전 의원이 관악을 출마 선언을 하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양당 지도부는 특히 정 전 의원의 출마에 대해 ‘철새정치’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유불리를 따지는 등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中企특위 광주 방문 정승 후보 우회지원 포석도

이정현 위원장 등 광주지역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새누리당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위원장 이정현 의원)가 31일 광주를 방문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성공버스 전국투어’를 실시한다.

특위의 이날 광주 투어는 전국을 순회하는 캠페인 일정 중 하나이지만, 이정현 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의 방문 장소가 오는 4월 29일 치러지는 서구를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구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 정승 후보에 대한 지원 포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정현 의원이 지난 19대 총선에서 40%에 가까운 득표율을 올린 지역인 만큼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특위를 직접 이끌고 정승 후보에 대한 우회 지원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30일 새누리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힘내라! 중소기업 희망 캠페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광주 투어는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특위 위원장인 이정현 최고위원과 이현재 부위원장, 류성걸·박대동·민병주·신경림·최복홍 의원, 김운세 새누리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참석하며 기재부·산업부·고용부 등 정부 관계자와 지역 중소기업 대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7시

40분까지 광주 서구에 있는 매월동 공공상가와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을 잇따라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오전 9시 북구 대촌동 (주)글로벌통신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오전 9시 35분부터 한국광기술원에서 특위 위원,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중소기업 대표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는 토론식으로 진행되며 광주지역 특화산업인 광산업 활성화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도의한다.

새누리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이번 전국 투어는 4월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전국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인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중소기업 특위 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광주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당면한 애로사항과 고민을 현장에서 경청하고, 이를 특위 의제로 채택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연금 실무기구, 출발도 못한채 표류

여야, 활동 시한 놓고 평행선...양당 수석·간사 협상은 계속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해산에 따라 구성기로 한 실무협상기구가 여야 간 이견으로 출발도 하기 전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유운근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어 실무기구의 구성과 일정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여야의 원래 합의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을 마련해 통과시키고자 요구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조재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기구가 무한정 기다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뒤서 그 안에 정리하고 합의된 결론까지 나와야 한다”면서 “이와 별도로 국회 특위는 5월2일

시한까지 최종적인 안을 만들어서 분회의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측은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을 정할 경우 논의가 파행을 겪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양당 수석과 국회연금 특위 간사들이 실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이나 구성,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해서 반드시 4월 임시국회에 결말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그 자체가 사실은 지남의 길”이라며 “사구 유렵도 수년에 걸쳐서 연금 개혁을 완수했던 만큼 단시일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636 콜고 민음소망 말하세요

인생에 대박찬스 한글전화번호 1636에서 잡으세요!

1636 KTX, 1636 롯데면세점, 1636 삼성카드, 1636 KBS, 1636 YTN

지금 잡으세요! 기회는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전국민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 국가통신과 IT가 하나되어 펼쳐진 사업
• 전국 1%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 불경기에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업
• 평생 연금처럼 보장받는 사업

대리점(사업자) 모집
영업사원 모집(생활보장)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미스코리아 ‘꽃 김사연’ 일일 전국모임도 활동하며 모든 당사자들이 (주)클리어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광주·전북·전남 지역사업평가단장 공모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할 지역사업평가단장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공모직위 및 임기
 - 직 위: 지역사업평가단 임원
 - 직 책: 단장(광주, 전북, 전남 각 1명)
 - 임 기: 임명일로부터 2년
 - 성공평가 결과에 따라 최장 3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계약 가능
- 응모자격
 - 지역산업·지역경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아래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대학(연구소)에서 정교수(최고 책임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있는 자
 - ② 대기업 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있는 자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있는 자
 - ④ 정부(지방자치단체)출연 및 투자기관에서 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있는 자
 - ⑤ 기타 직무를 수행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기관장추천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
- 제출서류
 - 〈1차 서류심사〉
 - 지원서(별첨 1) 1부
 - 자기소개서(별첨 2)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첨 3) 1부
 - ※ 1차 시험 합격자는 개별 서면통지(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포함)
 - 〈2차 면접심사〉 서류합격자에 한함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각 1부
 - 주민등록증 각 1부
- 서류접수 기간 및 제출처
 - 접수기간: '15. 03. 31(화), 09:00 ~ 04.09(목), 18:00
 - ※ 서류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며, 유선으로 접수 확인 요망
 - 제출방법: 등기우편(일부예 지원서류 제출 명기) 또는 방문접수
 - ※ 1차 서류심사용 자료는 등기우편과 아울러 이메일(sun@kiat.or.kr)로도 송부
 - 접 수 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4층 지역협력사업팀 (02-6009-3768, 3762)
 - ※ 소정양식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를 참고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공모결과 직격타가 없을 경우에는 임용대상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양식 없이 단장의 임기 중 직무수행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기관운영합성과 지역산업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비전과 경영목표가 제시된 주요업무 추진전략, 수단 및 추진 일정, 방법 등을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면접전형 시에는 기 제출된 직무수행계획서를 별도로 요약하여 서면 또는 프리젠테이션(PPT)으로 발표(5분 이내)하여야 하며, 발표자료 10부를 면접전형 당일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5년 3월 31일
광주·전북·전남 지역사업평가단 기관장추천위원회 위원장

말하는 법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뀔다. 시작하면 됩니다.

http://www.kleader.kr

초·중·고·대학생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어머니 스피치 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취업을 위한 지원서는 면접 준비 실전과정 성공을 부르는 말하기 기술 스피치 리더십 과정

명강사 육성과정
경의 스피치를 배우고 강연능력을 향상

강사 파견 업무
각 분야별 명강사 파견 전문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062)222-2255 / HP, 010-9441-7000
연세대학교출판부에서 발행된 우수교재도 있습니다.